

교육 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 1900년대 신문매체와 소설에 나타난 '서구'와 '유학', '여성'의 관련성 —

최기숙*

1. '교육 주체'의 탄생과 여성 교육의 출발

- (1) 문명 개화와 교육의 전범, 1900년대의 서구 인식
- (2) 교육 주체의 탄생 : '여성' 교육과 부인회 활동

2. '서구'의 담론화 방식과 '여성'의 관련성

- (1) 문명과 부강의 제국, 호혜적 패권의 서구
- (2) 유학과 서구, 여성의 관계성

3. 이인직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서구 유학

- (1) 계몽성의 이식, 여성적 체험의 공동화(空洞化) : 『혈의 누』
- (2) 모성의 부재와 대리 부성의 '서구' : 『은세계』

4. 결론 : 개화의 서곡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국문초록

1900년대를 신문 매체에서 가장 강조된 시사적 화두는 '문명'과 '개화'이며, '교육'과 '학문'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실천적 방법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교육열의 방향은 문명 개화를 선취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열강으로서의 '서구'를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새로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화 문제는 여학교를 통한 교육 문제, 학부모로서의 모자회 활동과 부인회 활동을 중심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계몽적 관점이 견지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계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직 활동에 대한 반성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조선의 문명 개화를 위한 거대한 근대 기획의 '포섭된 주체'로서 동원되었다는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다.

신문 매체에 나타난 '서구'는 문명 개화를 선취한 조선의 전범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서구와 일본 유학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사화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중에서 여성의 서구 유학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발견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00년대에 이인직이 창작한 『혈의 누』, 『은세계』, 『모란봉』에는 여성 인물의 서구 체험과 유학 생활이 서사화 되었는데, 타자에 의해 매개된 계몽적 관념이 지배적이며,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여성 인물의 경험적 삶은 기술되지 않았다. 또한 귀국 이후의 활동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미완의 서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화의 현실적 실천 방식을 모색할 수 없었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화의 주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조선적 상태'를 문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갈등과 문제의 소지를 '조선 내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서사의 정치성을 반영하고 있다.

핵심어 : 여성, 교육, 학교, 서구, 유학, 문명, 개화, 신문, 이인직, 『혈의 누』, 『은세계』, 『모란봉』

1. '교육 주체'의 탄생과 여성 교육의 출발

(1) 문명 개화와 교육의 전범, 1900년대의 서구 인식

1900년대를 전후 한 시기의 신문¹⁾ 논설에서 가장 강조된 시사적 화두는 문명과 개화이다.²⁾ 해당 논설에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교육'과 '학문'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³⁾ 그에 따라 해당 시기 신문 매체에서는 교육 관련 기사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보』에서는 반드시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1909년 7월 21일부터 「學界彙聞」란을, 1909년 8월 3일부터는 「學界紀聞」란을, 1910년 1월 5일부터는 「교육계」란을 배정할 정도로, 국내 교육은 물론 해외 유학생들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었다.⁴⁾

1883년에서 1886년 사이에 출발한 한국 초창기 근대 교육은 서양인에 의해 타율적으로 촉발되었는데, 당시로서는 근대적 학교의 성립이 미흡했기 때문에 개화파에 의한 외국 유학생의 파견 형식으로 선진 문명국의 교

- 1) 이 글에서 다룬 신문 매체는 『독립신문』(1896년 4월 7일~1899년 12월 4일), 『협성회회보/매일신문』(1898년 1월 1일~1899년 4월 3일), 『제국신문』(1898년 8월 10일~1902년 12월 29일), 『만세보』(1906년 6월 17일~1907년 6월 29일), 『대한민보』(1909년 6월 2일~1910년 3월 10일) 등이다. 1900년 이전 시기의 '서구' 인식이나 '개화'의 의미, 1900년대 후반의 교육구국운동 등에 관해서는 姜在彦의 『韓國의 開化思想』(정창열 옮김, 비봉출판사, 1981)을 참조.
- 2)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시대적 범주와 호명 방식을 갖는 1900년대 전후의 시기를 '문명 개화'를 위한 '계몽'의 담론이 지배했음에는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 문명 개화론이나 교육 계몽 관련 논의는 따로 논증하지 않는다.
- 3) '조선도 턴하에 상등 나라로 될 터이라. 다만 나라히 이러한 거슨 인민들이 학문이 업서 그런 거신즉 상등 나라히 되랴면 인민 교혹하는 거시 데일'('『독립신문』 1896년 5월 30일 「논설」)과 같은 논설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교육'을 주제로 한 『제국신문』의 논설(1899년 5월 8일~10일)과 '학문'을 주제로 한 논설(1900년 4월 9일, 4월 17일, 5월 25일, 6월 7일, 10월 12~13일, 12월 11일, 1901년 1월 19일, 2월 27일, 4월 4일, 5월 7일) 등을 들 수 있다.
- 4) 물론 교육관련 기사는 잡보란이나 외보란에도 실려 있다.

육 제도 시찰에 관심을 보였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시기의 신문 매체도 '교육'의 문제를 '문명개화'를 위한 제도적 실천 사항으로서 설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학교 설치와 인가, 폐지 문제, 기숙사 택정, 교사 초빙문제에서부터 방학과 개학, 시험, 교과목, 졸업식, 강습회, 강연회, 교재 저술, 낙제생 처리 문제, 불근(不勤) 학생 퇴학 문제 등 교육 행정이나 실무 사항, 축제, 운동회, 관람회, 학부모 차학회 등 학교 행사, 학교 기부금⁶⁾ 등의 재정 문제, 관리의 시찰과 새로운 교육 제도의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육 관련 기사의 관심의 편폭은 포괄적으로 나타난다.⁷⁾ 나라의 개명 정도는 학교 설립에 달려있다는 독자 투고⁸⁾는 학교 교육을 문명개화와 동일시하던 독자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명, 개화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론으로서 교육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의 교육적 대상으로서 지목된 것은 '수구'와 '완고'에 대항하는 '청년' 일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 맹농아, 고아,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교육 형태로도 보통교육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의무 교육¹⁰⁾이 강조되는 가운데, 여학생도 의무교육의 대상으로서

5) 강제업:1981, pp 282~283.

6) 특히 『대한민보』의 「학계기문」란에는 '○○熱心'이라는 표제로 교육계에 기부한 기사들이 다수 실려 있다.

7) 이상은 주로 『대한민보』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사례가 많아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는다. 학교가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동창회' 기사가 실리기 시작한다. 1895~1904년 까지의 근대학교의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업(1981), p.296, 308을, 1910년 현재 관공립고등학교 설립 현황에 대해서는 같은 책, p.336을 참조.

8) 『제국신문』 1900년 12월 27일 「잡보」 〈엇던 친구의 편지〉.

9) 1899년 5월 10일의 『제국신문』 「논설」은 '보통교육'에 관한 것이다. 1906년 8월 17일자 『만세보』 1면의 「準備時代(續)」에서는 8세 이상은 학교에 보내어 공부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역사학, 지리학, 생리학, 수리학, 도화, 산술, 음악, 병용지체로(兵戎之體操), 습자작문(習字作文), 국문전(國文典) 등의 과목을 거론하였다. 1906년 11월 10일 「논설」에서는 '普通學校增設'을 논하면서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거론되었고, 야학¹¹⁾과 노인학교¹²⁾, 실용학교¹³⁾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열의 방향은 문명 개화를 선취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열강으로서의 '서구'를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① 우리가 일성 혹은 말 이어이와 서양 사람의 경계로 말하면 빅성 된 자의 직척이 극히 흉대한 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혀 빅성의게 달نگ로 (『협성회회보』 1898년 1월 31일 「론설」)

② 이는 시세의 변함을 아지 못하는 고로 엇지 혼야서 서양 법률을 써야 하겠다는 사들을 생각지 못함이다. (『미일신문』 1898년 5월 9일 「논설」)

③ 어너 편이 익이고 어너 편이 저서 티서 제국에 지금 기화가 되였는지 슈구가 되였는지 이는 우리가 말을 아니 하여도 짐작들 하시려니와 (『미일신

10) 1906년 8월 22일자 『만세보』의 <雜報>란에 실린 「大韓自強會演說」에서는 의무교육의 필요성과 의의가 논의하면서, 남녀 8세에서 만 15세까지 8년간 의무교육을 하자는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8월 1일자 <雜報> 「女子教育會演說」에서도 '대저 교육이란 자는 계판 이래 상하 오천재에 인생활동상의 최수적의무야라'라고 하여 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11) 1899년 재동소학교에 야학이 실시되었으며(『제국신문』 1899년 4월 20일; 5월 17일 「잡보」), 1906년 8월 21일자 『만세보』의 <雜報>란에 실린 「夜學講習所」에는 前議官 鄭象煥이 필운대 半月亭에 日語夜學講習所를 設施한 기사가 실렸으며, 9월 6일자 <잡보>란의 「英語夜學」에는 漢城府 公立小學校 내에 6개월 속성과정의 英語夜學校를 설립한 기사가 실려 있다. 9월 9일자의 <잡보>란에 실린 贊文夜學校의 월사금은 1원씩이다. 1909년 6월 19일자 『대한민보』 「잡보」 <女子夜學>에서는 養源學校에서 야학을 실시하고 하기 방학에 여자를 모집하여 어학을 교수하기로 한 기사를 싣고 있다. 그 외 야학 관련 기사는 新明學校 일어야학(『대한민보』 1909년 8월 1일 「學界紀聞」)과 개인 집에서 일본교사를 초빙한 6개월 과정의 일어야학(『대한민보』 1909년 12월 1일 「학계기문」 <間谷語學>), 보통학교 내에 신설한 勞動夜學校(『대한민보』 1909년 12월 10일 「학계기문」 <通律夜學>), 西湖玄武學校 내의 야학(『대한민보』 1909년 12월 16일 「학계기문」 <西湖夜學>), 종로 청년회 학관에서 실시한 漢語夜學(『대한민보』 1910년 2월 24일 「교육계」 <漢語夜學>) 등을 들 수 있다.

12) 1907년 3월 2일자 『만세보』의 논설 제목은 「老人學校」로서, 50세 이상 노인의 재교육을 논의한 글이다.

13) 예컨대, 裁縫女學校(『만세보』 1907년 3월 3일 <잡보> 「여학제봉교 설립」)와 染織學校(『대한민보』 1910년 2월 24일 「교육계」 <女子染織學校>), 蠶業講習所(『대한민보』 1910년 2월 25일 「彙報」 <女子蠶業講習所規則>) 등.

문』 1898년 5월 10일 「론설」)

‘서구적인 것’이나 그 ‘사례’는 문명의 논리를 펼치는 유력한 설득의 기제로 인용됨으로써, 일종의 문화적 전고로 활용되었으며(①, ②),¹⁴⁾ 개화와 수구의 대결에서 개화의 승리를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로 인용됨으로써(③), 개화를 주장하는 신문 논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설득의 기제로 인용되기도 했다. 법률과 경계를 바로 세울 것을 내세우며 창간된 『제국신문』은 신문 발간의 전범을 ‘태서 각국’의 사례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¹⁵⁾

전반적으로 서구는 문명화를 통해 개화를 이룬 조선의 전범적 사례로서 호소되었을 뿐더러, 일상적인 논리를 강화하는 새시대의 새로운 전범으로써 인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문명과 개화를 선취한 독립국이자, 자유와 자주권을 성취한 나라로 강조됨으로써, 1844년에 유입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에 제시된 공평하고 부강한 서구의 이미지가 견지되었다.

서양의 문명 개화는 교육과 학문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조선이 서양을 통해 이러한 교육 제도를 배워야 한다는 의식은 이미 1900년 이전부터 대두되고 있었다.

14) ‘우리가 항상 외국 사람의 풍속과 인정을 이끌어 말을 많이 하매 보시는 이들이 혹 자미롭지 않게 여길 듯하나 세계에 문명한 학문과 굉장한 사업을 가만히 궁구하여 보면 실상은 모도 늙과 비교하여 늙보다 낮게 하여 보자는 생각을 말 막아야 된 일이라.’(『미일신문』 1898년 6월 22일 「론설」)와 같은 언급은 당시 신문 매체에서 설득의 기제로 ‘서구’와 ‘서양적인 것’이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사례는 역으로 당시에 ‘서구적인 것’이 글쓰기와 화법의 유력한 설득 기제로 인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서구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미일신문』 1898년 5월 13일 「론설」; 1898년 8월 25일 「론설」 등). 그러나 완고당 양반의 득세로 쇠약해진 폴란드의 사례를 들어 개화를 합리화하는 류의 논지(『미일신문』 1898년 5월 19일 <외국통신>)가 전반적으로 우세하다.

15) 『제국신문』 1989년 8월 13일 「잡보」.

16) 송병기, 「쇄국기의 대미인식」, 류영익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pp.15~16. 그 외에 개화기의 대미인식은 같은 책에 실린 류영익의 논문을 참조.

④ 현금 구미 제국이 서로 징진호는 새를 당호야 (...) 세계 기명호 나라에서 들은 인민 교육 호는 거슬 데일 요무로 아라 괴어이 공부 아니호는 빅성이 적도록 힘을 쓰느니 (『협성회회보』 1898년 1월 1일 「론설」)

⑤ 티셔 제국에서들은 문명 부강을 서로 다토어 호 발 거름이라도 문져 나가기를 힘쓰미 (...) 그 중 데일 힘쓰는 교육으로 말호드러도 각 학교에서 일년 동안 날마다 골몰히 지니다가 (『제국신문』 1898년 9월 15일 「론설」)

⑥ 동양에 허문만 숭상호는 습속을 버리고 서양 사림들의 궁리 격치호는 방법을 취호겟는디 (『독립신문』 1899년 1월 24일 「한청조약」)

⑦ 일전에 경등 교당에서 우리나라 부녀들이 외국 부녀들과 갖치 연설을 호는디 미우 유리호 말들이 만히 잇스니 우리 나라 부녀들도 교육만호면 늬의 나라 부녀들만 못하지 아니호너라. (『협성회회보』 1898년 1월 1일 「내보」)

⑧ 활동력이 부족하고 지식계가 비열하든 부인 사회가 점점 개진해야 남자에 불양하난 사업이 유한 부인은 구미 제국이 출선자가 되앗더라. 금세 문명국 부인사회를 관하건대 군사상 전투력 일사이외에는 남자가 부인 사회를 감히 무시치 못하압 사실이 유하다 하노라. (...) 夫日本부인은 사십년간에 문명공기를 흡하고 문명교육을 受호고 문명적 교제도 유하고 문명적 사업도 행하던 부인 사회이라. 아국 부인은 규중에 잠거호는 고루습으로서 능사를 습고 외국 부인의 정도를 부지함이 불가호며 효측지 아니호미 또한 불가호도다. (1906년 11월 14일자 『만세보』 「논설」, 〈婦人社會〉)

구미 제국과 비교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④), 태서 제국의 교육열을 강조하면서 학교 공부할 권유하는 논지(⑤)를 펼치고, 허문을 추구하는 동양에 비해 격물치리를 궁구하는 서양 학문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인재를 선발하여 유학보내야 한다는 취지(⑥)를 싣기도 했다. 서구에서 여성교육을 통해 문명, 개화에 성공하고 자강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고, 조선의 여성도 교육하면 외국 부녀 못지 않으리라고 하여 여성의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서구의 사례를 들어 설득하거나(⑦, ⑧), 서구를 배워 문명교육을 받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아국부인'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⑧).

이처럼 국내에서 서구의 문화와 제도, 생활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편적인 설득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서구 유

학의 필요성과 사례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다.

(2) 교육 주체의 탄생 : '여성' 교육과 부인회 활동

1890년대 후반부터 신문 매체를 통해 강조된 문명 개화의 논리는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과 교육적 수혜의 문제를 통해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새로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¹⁷⁾ 거론되기 시작했다.¹⁸⁾ '교육'이나 그 수행 기관인 '학교'는 근대적 주체로서 여성이 집단적으로 호명되는 제도적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해당 시기 신문 매체에서는 여성 교육의 범주가 확대되고, 교육 내용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교 실시 관련 기사나 여학생 모집 기사는 여성 교육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내역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남녀 분별론에 대한 재고¹⁹⁾, 내외법 폐지론²⁰⁾, 여권의 문제²¹⁾ 등이 제기되는 등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외국 여성의 사회 활동 사례 등이 기사화 되기도 했다.

-
- 17) '교육 주체'라는 용어는 교수자의 측면이 함의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식과 학문의 수행 주체로 규정하여 사용한다.
- 18)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이 국문 표기를 선택한 것은 여성과 하층민 등을 계몽의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국문 표기를 선택한 『협성회회보/매일신보』의 경우는 배재학당(培材學堂)의 학생회가 발행한 신문으로서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이 신문 매체를 발간할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19) 『제국신문』에는 1902년 9월 29일~10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남녀의 분별'에 관한 논설을 실고 있다.
- 20) 1906년 8월 24일자 『만세보』의 <논설>에 실린 「內外法」에서는 내외법이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은 허락하고 있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문명상 내외법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글을 실고 있다.
- 21) '男權을 人誰厭이리오만은 國內女子가 盡兼知識야 皆皆作自由하면 不惜我男權.' (『대한민보』 1909년 10월 24일 「散錄」 <癡中漫話>).

① 녀즈를 교육하여 노케 되면 나라에 대단히 유조흔 일이 여러 가지 있스니 첫지는 지혜 있는 부인들도 국스를 의론하야 정치가 진보케 할 것이오 돌지는 남즈가 혼인 후에 집안 일을 서로 의론하야 가도를 흥왕케 하되 롱히 그 남편을 도와 편지도 디서하며 문서도 기록하며 한가할 때에 서책을 보며 학문을 토론하니 지안에 화기가 춤만하야 빅년을 히로하는 녀의가 될 썬 아니라 심전에 정근흔 친구가 될 것이오 셋지는 어린 으희들이 +세 이전에는 항상 그 모친의 휘하에 자라며 언행과 동정을 비호나니 그 어머니가 학문이 있스면 학교에 보이기 전에는 그 모친이 곱아치리니 이것은 양육하는 모친만 될 썬 아니라 녀즈의 스승이 되는 리치라. (『독립신문』 1899년 5월 26일 「녀학교론」)

② 북촌 교동 사는 엇던 녀인이 본디 총명 헤탈하야 항상 계집이 되어 학문 비호지 못헐 것슬 한탄하다가 녀학교가 된단 말을 들고 대단이 기거하였더니 녀학교 설시가 또흔 부지하세월이오 또 의학교 설시된단 말을 들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비록 녀학교가 되어 학문이 있다 헐들 녀즈의 몸이 되었스즉 남즈처럼 쓸 더가 업는지라. 대더의 세상에 유익흔 일도 만을 연이니와 남즈의 사업을 뒤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의학교장 지석영씨를 차자가 보고 입학하기를 청헌대 교장의 말이 그대의 뜻은 가락하거니와 남녀 갖치 비호라는 장명이 업스니 너 마음으로 천편할 슈 업다 헌대 그 녀인이 장차 학부대신의게 청원하려헌다니 가위 희한흔 일일너라. (『제국신문』 1899년 5월 19일 「잡보」 <여인성심>)

③ 동양 녀인을 서양 부인의게 비교하면 지조와 학문이 대단히 다른지라. 그런고 동양 녀인은 아모 권리가 업시되 서양 부녀는 디위도 놓흔 이가 만코 권리도 사나회와 갓도다. 만국 중에 미국 부녀가 데일 세계 상에 유명하니 —은 나라에서 부녀를 다스리되 남녀간에 평등권을 주어 비록 시집 가지 아니하녀즈라도 산업을 관리하기에 남즈보다 못하지 아니하고 —은 부녀의 직업이 인민을 교육하는 교사와 의술과 관부에 서기와 회계와 교회 중에 전도함과 포빅(布帛)을 직조(織造)하는 법과 던문 디리의 (...) 대한정부에서도 어서 녀학교까지 설치하야 녀으들을 7릇쳐 문명흔 나라와 갓치 되기를 힘들 쓰시오. (『독립신문』 1899년 9월 7일 「부녀의 권리」)

④ 영국에 부인이 무슴 서기 노릇하고 칩 만들어 쓰는 자의 수효가 오빅스십인이 잇는디 그 중에 유명한 부인 오인은 일년에 스만원 월급을 것어 들이는 니가 잇고 신문 기자로서는 부인이 더욱 잘하는 고로 적어도 일년에 칠만원식 밧는 자가 잇고 미국에는 신문 기자 밧게 서기하고 더슬하는 부인 삼천명이 잇다더. (『제국신문』 1900년 1월 11일 「잡보」)

①에서는 여학교 설치 사실을 치하하면서, 여자 교육의 유익성으로 부인들의 정치적 관심으로 진보를 이루고, 혼인 후 남자와 집안 일을 의논하고 학문 토론과 문서 기록함으로써 집안에 보탬이 되며, 취학 전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는 총명한 여인이 여학교 설치 소식에 기대하다가 지연되자 의학교 교장을 찾아갔는데, 남녀가 함께 배우라는 교칙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학부 대신에게 청원할 예정이라는 기사이다. 교육열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의 태도에 대해 '회한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당시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교육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다.

③은 미국 부녀가 남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고, 미혼이라도 직업을 가지며, 교사, 의술, 관부의 서기와 회계, 교회 전도, 직조, 기계 제조, 언론사, 우체국, 인쇄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한 정부에서도 부녀 교육을 위해 여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는 영미에서 저술과 기자, 서기 등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인물에 대한 기사로서, 여성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사회화 되는 사례를 보여준다.²²⁾

이처럼 여성이 기사화되는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주체로서 거론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문명 개화한 서구 여성의 존재는 교육 주체로서의 여성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당시 조선에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존재했는데, 여학교와 부인회가 중심이 되었다. 여학교와 학생친목회, 부인회, 종교회, 경제회 등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것이 그 예이다.²³⁾

22) 그 외에 『제국신문』 1901년 6월 24일 「잡보」 〈女子學間可驚〉에는 영국 여성의 신문사 취업 기사가 실려 있다. 1906년 9월 2일자 『만세보』 〈外報〉란의 「女子任官」에는 일본 여성의 우편국 취직 기사가 실려 있다.

23) 1906년 6월 17일자 『만세보』의 〈夏雲奇峰〉란에는 여학교와 부인회 단체를 긍정하는 언급이 실려 있다. 물론 이 시기에 남학생 중심의 청년회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윤치호, 장응진 등이 발기한 靑年學友同志會(『대한민보』 1909년 8월 12일, 이 조직은 「靑友會」라고 약칭된다)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신문 매

여학교 관련 기사는 학교 설립의 문제, 교과목 등 교육 내용의 문제, 여학교를 둘러싼 찬반 여론²⁴⁾ 및 존립 여부에 대한 관심, 재정문제, 여학교 연설 내용²⁵⁾, 복장 문제²⁶⁾와 퇴학 문제²⁷⁾ 등이 기사화 되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학부모 회의가 처음 조직된 것도 이 시기이다.²⁸⁾ 그 외에도 귀족여학원(貴族女學員)의 존재²⁹⁾나 임시 교사 활동³⁰⁾ 등의 교육 활동이 기사화되었으며, 정규교육 외에 임시 강습³¹⁾도 시행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흥군에서 여성의 힘으로 숙정여학교(淑貞女學校)가 설립된 사례도 보고되었다.³²⁾

당시 존재했던 부인회 활동을 『만세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여자교육회와 애국부인회, 진명부인회, 부인감찬회 등이 주목되며, 『대한민보』에

체에는 청년회 연설에 관한 기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예컨대, 『대한민보』 1909년 11월 9일 「彙報」〈靑會演說〉 등).

- 24) 여학교에 여자를 보낸다고 비방하는 여론을 비판한 독자투고(『만세보』, 1906년 7월 17일 「국문독자구락부」)나, 여학교에 찬성한다는 독자투고(『만세보』, 1906년 7월 24일 〈잡보〉, 「贊成女校」), 여학도를 부러워 하는 글(『만세보』 1906년 9월 16일 〈靑燈雜저〉) 등은 당시 여학교가 설립되고 여자 교육의 취지가 설득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이 공존했음을 짐작케 한다.
- 25) 1906년 6월 17일자 『만세보』의 〈雜報〉란에 실린 「女學校演說」 기사에서는 여성의 복장과 내외법 폐지 등 여성의 일상 생활에 관한 논제가 다루어졌음을 신고 있다.
- 26) 『대한민보』 1909년 12월 11일 「학계기문」〈衣服儉薄〉.
- 27) 한 예로 同德女子義塾에서 체조교사와 학생 78인을 출교했다는 기사를 들 수 있다(『대한민보』 1909년 9월 21일 「학계기문」〈女徒點학〉).
- 28) 이 모임은 모자회(母姊會)라고 불리웠으며, 제동보통학교(齊洞普通學校)(회원 40여 명. 『대한민보』 1909년 12월 12일 「학계기문」〈學徒母姊會〉), 관립 한성고등여학교(官立 漢城高等女學校)(『대한민보』 1909년 12월 16일, 12월 18일 「학계기문」〈女校母姊會〉), 숙명고등여학교(淑明高等女學校)(『대한민보』 1910년 2월 25일 「교육계」〈女校母姊會〉) 등에서 조직되었음이 기사화 되었다.
- 29) 『만세보』 1906년 7월 18일 〈잡보〉 「貴族女學員 感恩」.
- 30) 『만세보』 1906년 9월 27일 〈잡보〉 「婦人教授」.
- 31) 養心女學校에서 하기 방학기간에 임시 강습소를 설치하고 일반 여자에게 日語, 算術, 英語를 교수한다는 기사(『대한민보』 1909년 7월 14일 〈잡보〉 「女子講習」).
- 32) 『대한민보』 1910년 2월 5일 「교육계」〈咸興女校〉.

는 여자의 지식을 개발시키기 위해 부인회가 조직된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³³⁾ 당시 신문 매체에서 사용된 ‘부인’의 함의는 오늘날과 같은 유부녀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 일반의 어휘로도 쓰였지만³⁴⁾, 사실상 ‘부인회’ 회원들은 대부분 ‘○○’의 ‘부인’으로 호명되었으며, 관리의 연회에 참석하고 학교 설시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양규의숙(養閨義塾)에서 열린 개회식을 필두로 활동을 시작한 ‘여자교육회’는 회원이 280여명으로 여자교육을 육성하고 부인 사회를 문명화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³⁵⁾ 『만세보』에서는 1906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3회에 걸쳐 여자교육회의 연설 내용 전문을 실고 있는데, 규중에 간헐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³⁶⁾, 태교와 가정 교육을 그 목적으로 내세운다는 논지³⁷⁾에 이어 여성 교육을 위한 실천적 행동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젊은 여성은 교육을 통해 현모양처의 자질을 완비하고, 이세 자녀의 태교와 가정 교육을 시켜 국가의 동량을 길러야 하며, 중년 이상의 부인은 본 회의에 찬성하고 단체를 확장하여 신지식과 신학문을 강구 연설하여 좋은 말과 논의를 마음에 새기고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하여 여자의 총명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단상(蛋桑), 직조(織組), 재봉(裁縫) 등 각종 여자의 공예를 배워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경제의 차원에서, 노동의 재화 창출의 차원에서

33) 1910년 1월 16일 「교육계」〈婦人會組織〉.

34) 『독립신문』에서는 ‘여성’의 일반의 개념으로 ‘너편네’라는 호칭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35) 1906년 7월 8일자 『만세보』의 〈논설〉「婦人開明」, 1906년 11월 2일자 〈잡보〉란에 「女子教育會 趣旨書」를 따로 실기도 했다. 1906년 11월 9일 〈논설〉「婦人會」에서는 부인 화합의 주제가 학문 지식의 발달과 진취에 있음을 강조하고, 교과서 판출과 교육주의 강론, 여가의 복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인사회의 문명진화 기초의 확립을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실고 있다.

36) 『만세보』 1906년 8월 1일 「잡보」〈여자교육회연설〉.

37) 『만세보』 1906년 8월 2일 「잡보」〈여자교육회연설(續)〉.

여공을 권면하고, 육아와 조병술(調病術)을 담당하는 위생과를 통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여성 교육과 지나의 일본 유학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도 진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³⁸⁾ 이 여자교육회는 조직 편제나 분설, 지회(支會) 실시, 시무 확장, 찬무소(贊務所)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등 체제 문제에서부터 각종 토론회 사실³⁹⁾과 그 내용⁴⁰⁾이 지속적으로 기사화 되고 기자의 탐방기⁴¹⁾까지 실릴 만큼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여자교육회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지만 토론회에는 남자와 외국인도 참여하였으며, 내외법 폐지에 동의하는 여성들이 장의(長衣)를 벗고 양산(洋傘)을 쓰고 갈 정도로 '문명진보'를 점차로 실천하는⁴²⁾ 장이 되기도 하였다. 『만세보』에는 1906년 11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의제(衣制) 개량의 일환으로 '여자의제(女子衣制)'에 관한 논설이 실리는데,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여자교육회가 여자 기관을 개량하기로 의정하고 의정부에 헌의서를 제정했다는

38) 만세보 1906년 8월 3일 <잡보> 「여자교육회연설(續)」.

39) 토론회 개최 사실만 기록한 『만세보』의 기사로는 원동 여자교육회의 토론회 개최 기사(1906년 9월 13일 <잡보> 「女會討論」), 토론회를 통해 여자뿐 아니라 일반 인민의 지식을 계발하겠다는 기사(1906년 9월 29일 <잡보> 「女會討論」) 등을 들 수 있다.

40) 『만세보』에 기재된 여자교육회의 토론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 '育兒를 教育함이 嚴切히 團束하는 것보다 和平히 引導하는 것이 可함'(1906년 10월 12일 <논설> 「女子教育會의 知識程度」)

* '婦人도 淺色衣服보다 深色을 着함이 可함다'(1906년 10월 27일 <잡보> 「婦人進歩」)

* '婦人도 産業에 用力하여 男子만 依賴치 아니함이 可함', '女子가 장옷을 쓰는 것보다 벗고 당기는 것이 可'(1906년 11월 11일 <잡보> 「女子教育會 會況」)

* '婦人이 社會上에 交際하려면 內外 아니함이 可함'(1907년 1월 26일 <잡보> 「女會討論」)

* '學問이 勝於資本'(1907년 4월 25일 <잡보> 「女會討論」)

이상과 같이 토론 주제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나 '삶의 방식', '사회적 역할' 등에 관한 것에서, 옷입기 등 일상적인 것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41) 『만세보』 1906년 10월 12일 <논설> 「女子教育會의 知識程度」.

42) 『만세보』 1907년 4월 25일 <잡보> 「女會討論」.

기사가 인용될 정도로⁴³⁾, 여자교육회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진명부인회(進明婦人會)'에서는 일반 부인이 집회하여 지식을 교환하고 교육을 찬성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다.⁴⁴⁾

1906년 11월 12일에 일본 부인 삼백 여명과 아국 부인 수십명이 출석한 가운데 일본인 구락부에서 개최한 애국부인회가 주목받으면서⁴⁵⁾, 한국 특사 환영회 등의 공식 모임을 가진 것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⁴⁶⁾ 그 외에도 양잠(養蠶) 등 여성을 경제 주체로서 부각시킨 관점이 발견되기도 하며,⁴⁷⁾ 나라 빛을 갓자는 취지에서 의금을 낼 것을 제안한 부인감찬회(婦人減餐會)의 활동이나⁴⁸⁾, 국채 보상을 위한 활동⁴⁹⁾, 자선활동⁵⁰⁾ 등이 주목되었다.

종교 활동을 통한 공식화된 여성 활동으로 천도교⁵¹⁾와 야소교 등의 종교활동이 기사화 되었다.

이처럼 학교와 부인회를 통한 여학생과 부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는 일반 여인들도 장의를 벗고 남자 적삼을 입고 양산을 들고서 거리를 왕래 하자고 주장하는 데까지⁵²⁾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사회 활동⁵³⁾이 기사화 되면서 여성 교육의 문제는 사회적 실천과 연계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3) 『만세보』 1906년 12월 20일 <논설> 「女子衣制改良議」.

44) 『만세보』 1907년 4월 24일 <논설> 「婦人社會」. 진명부인회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만세보』 1907년 4월 25일 <잡보> 「進明婦人會設立」를 참조.

45) 『만세보』 1906년 11월 13일 <잡보> 「愛國婦人會」.

46) 『만세보』 1906년 12월 14일. <東京電報>

47) 『만세보』 1906년 7월 7일 <雜報> 「부인회 양잠성적」.

48) 『만세보』 1907년 3월 2일 <잡보> 「婦人減餐會 警告文」.

49) 『만세보』 1907년 3월 17일 <잡보> 「婦人義金」.

50) 『만세보』 1907년 5월 15일 <잡보> 「婦人慈善」.

51) 『만세보』 1906년 9월 16일 <잡보> 「婦人誠心布教」; 1907년 7월 18일 <잡보> 「婦人聽教」.

52) 『만세보』 1906년 8월 3일 <잡보> 「衛生有助」.

53) 예컨대, 淑貞女學校 생도들과 여자교육부인회에서 수재구휼을 위해 모금한 기사(『대한민보』 1909년 10월 29일 「학계기문」 <女學員救災>) 등.

이상과 같은 여성의 사회화에 관한 신문 매체의 기사와 논설은 첫째, 여학교를 통한 교육 문제와 둘째, 학부모로서의 모자회 활동, 셋째, 남편이 있는 유부녀의 부녀회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경우에서, 여성은 문명 개화를 위한 교육 주체로서 조명되었지만 사실상 학습 대상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모자회를 통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회적 역할은 자녀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세 번째는 계몽 의식을 가진 토론회의 사회적 주체로서 조명된 경우인데, 내외법 폐지를 통한 남녀 평등이나 새로운 자녀 교육법의 계몽, 산업 종사, 학문적 주체로서의 측면에 강조되는 등 일반적인 계몽론에서부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조직 활동에 대한 자기 반성의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들이 서구나 개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신문에서 강조되는 문명 개화의 일반론적 견지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것은 부인회 활동이 계몽의 정당성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 거리가 된다는 인식에 기인하지만, 여성이 조선의 문명 개화를 위한 거대한 근대 기획의 '포섭된 주체'로서 동원되었다는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서구'의 담론화 방식과 '여성'의 관련성

(1) 문명과 부강의 제국, 호혜적 패권의 서구

신문 매체에서 서구가 담론화 되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문명과 개화를 위해 거론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부요와 부강의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이며, 셋째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이미지로 호소되는 경우이다.

* 문명과 개화

① 현금 동서양 각국이 다 등수가 있스니 데—등은 문명국이요 그 다음에는 기화국이요 그 다음에는 반 기화국이요 그 다음에는 기화 못한 야만국이요. 대개 세계에서 말하기를 영길리와 미리건과 불란셔와 덕국과 오디리 등 나라는 데 —등 문명국라 하며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 「나라 등수」)

② 서양 사람의 격치학문이 이후에 더 괴괴묘묘할 것이 잇슬는지도 몰으거니와 지금으로 말하더라도 룬선 룬거가 심겨스즉 천만리를 몇날 몇시간에 리왕할 것이요 번보 번화가 잇스즉 천만리 상적에 성음이 조석 상통할 것이요 기타 즘명종 시표라던지 일용 스물샨의 신괴 묘원하야 변환무궁한 여러 가지 리치를 말하진디 엇지 탄복할 비 아니리오. 국부민강이 그 속에 조지흔 것이오 (...) 외국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잇슬수록 아모조록 분흔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남이 못할 일들을 분발하야 (『독립신문』 1899년 4월 25일 「사람은 일반」)

* 부요와 부강

③ 미국과 꺾치 세계에 부강한 나라히 될 터이요 (...) 세계 스귀에 두 본 보기가 있스니 조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쏘야 미국꺾치 독립이 되야 세계에 제일 부강한 나라히 되던지 펄넨꺾치 망하던지 좌우간에 사름 헝기에 잇는 지라. 조선 사람들은 미국꺾치 되기를 바라노라 하더라. (『독립신문』 1996년 11월 24일)

④ 천하 대세를 슌혀 보건디 구미 각국은 점점 부강하고 문명한 디경에 나아가되 (...) 서양에 부강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리익 뉘을 날노 힘쓰는 쟁들이요 동양에 빈약한 나라들은 그러치 못하야 리해를 불고하고 흥상 뒤로 물너가기만 도화하는 쟁들이로다. 그런즉 문명하고 부강하논디 크게 리익되는 다섯가지 요건을 대강 설명하노니 ○ 一은 철로요 ○ 二는 룬선이요 ○ 三은 번선이요 ○ 四는 ○ 우테요 ○ 五는 신문이라. (『독립신문』 1899년 9월 13일 「다섯가지 큰 리익」)

⑤ 미국에 히마다 외국인들에 이스하는 슈효 심히 만은디 (...) 금년에는 오십만명에서 팔십만명은 미국으로 들어가리라고 한다더라. (『제국신문』 1900년 5월 29일 「잡보」)⁵⁴⁾

54)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독립신문』 1897년 8월 3일 「외국 통신」에도 실려 있다.

* 패권의 제국

⑥ 청국 사람들이 몇천년을 심각하기를 청국이 세계 중에 제일 기화한 나라하고 제일 강하고 제일 부요하고 제일 큰 줄노 심각하야 몇천년 전에 만든 법률과 풍속과 덩치를 오늘날까지 숭상하다가 영길리와 싸움하야 (...) 문명 기화한 나라 사람들을 보면 오랑키라 하고 귀족들은 외국에 가기도 슬허 하고 새 학문 비호는 사람을 천히 녀이고 그져 몇 천년 된 풍속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고로 (『독립신문』 1896년 8월 4일 「논설」 (전호 연속))

⑦ 서양 각국이 청국 토지를 가지고 외쪽 가르듯 고기점 논호듯 흐려 혼다는 의론이 있다는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아는 바이어니와 (『독립신문』 1899년 11월 25일 「론설」)

세계 각국을 문명국, 개화국, 반개화국, 야만국으로 서열화할 때, 서구는 문명국의 반열에 포함되었으며(①), 윤선, 윤거, 전보, 전화, 자명종, 시표 등 근대적 문물을 발달시켰음이 강조되었다(②). 서구를 모범으로 삼아 조선의 발전을 주장하는 논지가 강조되기도 했다.⁵⁵⁾

서구는 또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부요한 세계로 인식되었는데, 특히 미국은 세계 제일의 부요국이자(③, ④), 이민 희망국으로 선호되었다(⑤). 서구의 부강 요인으로는 철로, 윤선, 전선, 우체, 신문 등 근대적 문명화 기계들이 거론되었다(④).

서구는 청국에 이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으로서(⑥, ⑦), 청국의 토지를 분할하려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되는 동시에(⑦), 새로운 학문을 통해 배워야 할 전범으로 설득되기도 했다(⑥).

그런데 서구가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담론화 될 경우는 호혜의 나라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패권을 전횡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양분되어 나타난다.

55) 물론 '서양국이란 나라들은 본시 서방 오랑캐 나라로 명식된 지가 몇 백년이 못 될 뿐더러 더의들이 아모리 돈이 만코 그기묘묘한 지조가 잇슬지라도 세상 리치가 그러할 니가 업슬 것이' (『독립신문』 1899년 5월 5일 「방안만 아는 말」) 와 같이 서양의 문명 개화를 비판하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⑧ 작년 일년 내에 미국 인민이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량으로 세계에 쓴 돈이 금전으로 오천 이백 만원인데 착한 일을 인연하여 돈 출럼 만히 하기는 미국이 세계에 제일이요 (『독립신문』 1897년 6월 8일 「전보」)

⑨ 여의 와서 잇는 교수들과 의원들과 부인네들이 문명 기화하고 선경 갖춘 본국과 부모 형제 친척 친구를 다 버리고 몇 만리 타국에 와서 거처와 의복과 음식이 모두 불평하고 도로가 더러워 단니기가 어렵고 언어가 불통하여 조선 사람과 교제하기가 어렵고 (『독립신문』 1896년 8월 20일 「논설」)

⑩ 조선 인민의 부강함을 축수하고 전국 인민이 동심 합력하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아모소록 조선이 조조 독립이 되고 인민이 타국 인민과 궤차 세상에 더점을 받고 학문과 지능이 늘며 성취하는 법이 진보하여 의복 음식과 거처 범절이 태서 각국과 궤차 되며 (『독립신문』 1896년 9월 3일 「논설」)

⑪ 정동 미국 목스 원두우씨 집 녀학당을 설치하고 선성인즉 대한 녀인을 두었으며 (『독립신문』 1899년 4월 22일 「잡보」 ○녀학당)

⑫ 지작년 스월에 미국 철도 회사에서 대한 정부에 인가를 얻어 역스를 시작하되 (『제국신문』 1898년 8월 22일 「론설」)

⑬ 대개 서양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종교(宗教)는 다 쓸어 업세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다 놀너 업더리고 세계상에 놓게 보며 넓게 거러 오죽 조그들만 홀노 놓고져 하느니라. 서양 사람들이 남북 아메리카 주에 들어가서 그곳 적식 인종의 나라 집을 멸망하며 사회(社會)를 뭉어함의 지금은 그 짜의 주인 되던 구족(舊族)들이 씨가 업도록 쇼멸이 되고 (『독립신문』 1899년 11월 9일 「론설:적호 련속」)

서구(미국)은 '불쌍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나라로서(⑧),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경 같은 본국'과 부모 형제를 버리고 타국 조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며(⑨), 조선의 부강과 자주 독립을 위해 교사를 파견하고(⑩), 여학당을 설치하여 교육활동을 하게 하고(⑪), 철도 건설을 통해 조선에 근대 문명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는(⑫) 실제적 삶의 호혜국으로서 제시되었다. 그런 반면 다른 종교와 인종을 억압하는 패권의 독점력을 발휘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조명되기도 했다(⑬).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⑫와 같이 조선의 근대화를 실현시키는 실제적인 호혜국으로서 부각된 사례가 가장 많다.

이처럼 ‘서구’는 격물치지의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통해 문명화를 이룬 선진 제국으로서, 문명과 개화를 이루기 위해 조선이 배워야 할 전범으로서 설득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서구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이미지로도 언급되었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담론화되지는 않았으며,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조선의 자강을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서구=문명 개화의 세계 ; 조선의 전범’이라는 주장이 문화적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유학과 서구, 여성의 관계성

조선이 문명과 자강을 위해 서구를 배우는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학교를 실시하여 서구의 학문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유학을 통해 신학문과 제도를 직접적으로 배우자는 것이 제안되었다.⁵⁶⁾ 그 결과 당시 신문 매체에는 문명 개화를 위해 서구의 신학문을 가르치는 국내의 학교 설시나 교육 문제 관련 기사를 비롯하여 유학 관련 기사가 빈번하게 게재되었는데, 특히 서구 유학 관련기사보다는 이미 서구를 배워 동양의 문명국으로 부상한 일본 유학 관련 기사가 많다.

『만세보』의 경우, 일본 유학 기사가 서구 유학 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실제로 관비 유학의 수혜자는 모두 일본 유학생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인재를 파견한 것은 1876년 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가 일본의 관청과 공장을 시찰한 것이 처음이지만, 유학생의 파견은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이 전해지면서 자강(自強)을 위해 유학생을 중국과 일본에 보내야 된다는 주장에 힘입어 1881년 2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소속으로 조선 학생이 파견되면서부터이다.⁵⁷⁾

56) 『대학민보』 1909년 8월 3일 「學界紀聞」의 〈學會講演〉에서는 일본에 있는 대한흥학회의 교육부 강연에서 商業談, 工業談과 함께 留學生의 談이 발제되었는데, 이는 유학이 공론화되었음을 보여준다.

57) 이광린, 「개화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당시 일본은 이미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수용하여 정부와 민간의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유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⁵⁸⁾ 일본이 동양 제일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구미 각국에서 신학문과 제도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판단⁵⁹⁾이나 일본이 구미 각국에서 배워 문명 개화했다는 판단⁶⁰⁾은 일본 유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발시켰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신문 매체에서도 일본 유학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수록된다. 예컨대, 유학생수⁶¹⁾나 학교의 방학이나 개학일과 유학 비용의 문제⁶²⁾ 등에서

②, p.40, 45. 이때 유학생 추천의 경로는 불투명하다. 당시 신문에서도 '충준 자체', '선비'를 유학보내야 한다는 언급만이 실려 있어, 관비 유학생의 자격 조건이 선명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1881~1884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확인된 유학생 수는 67명이다(위의 논문, p.57).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갑신정변에 이르기까지 50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제 1기인 1991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수원(隨員)으로서 방일(訪日)한 兪吉潁, 柳定洙가 경응의숙(慶應義塾)에, 尹致暘가 동인사(同人社)에 입학한 것을 비롯하여 그 해 9, 10월에 걸쳐 제 3회 수신하 趙秉鎬 일행의 수원(隨員) 張大鏞, 申福模, 李銀突 등 세 명이 陸軍戶山學校에, 1883년에는 金玉均의 주선으로 徐載弼 이하 44명이 慶應義塾에 위탁되어 그 후 陸軍戶山學校에 在籍하고 있다(강재연:1981, pp.199~200).

58) 이광린:1986②, p.63.

59) 『독립신문』 1896년 12월 2일 「론설」 등.

60) 『협성회회보』 1898년 2월 12일 「론설」.

61) 정부파견 유학생의 학과별 학생수는 農商工科 22인, 法政經濟科 16인, 教育文學科 8인, 醫學科 3인, 普通學科 3인, 理化學科 2인, 軍事學科 1인으로 보고되었다. 『대한민보』 1910년 1월 11일 「교육계」 〈日本留學生學科〉. 1910년 1월 12일에 관비 일본 유학생은 700여 명으로 보고되었다(『대한민보』 〈교육계〉).

일본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길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대한민보』 1910년 2월 5일 「취보」 〈斷指請願〉란에는 가난한 25세 청년이 외국 유학 희망하나 돈이 없어 斷指하여 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기사가 실려 있다. 학부에서는 그 뜻은 가상하나 풍속상 불미스러우니 관비생 시험을 치를 때 응시하라고 권고하였다.

62) 필자가 확인한 신문 매체에서 유학 비용에 관해 언급된 사례중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은 1899년 4월 4일 『독립신문』 「잡보」 '○ 우태부송' 에 실린 기사이다. 그 외에 일본 유학 비용에 관해서는 학비에서 월사, 의복비, 서책비, 여비, 식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소하게 기사화되었으며, 일본 유학생들이 처한 가장 큰

부터 유학생들의 친목회 조직⁶³⁾이나 배하식(拜賀式)⁶⁴⁾, 잡지 간행⁶⁵⁾ 등 조직적 활동이 기사화 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유학 규정⁶⁶⁾, 성적 관리⁶⁷⁾, 품행과 근만의 관리, 학교별 입학자 수⁶⁸⁾, 위탁 문제⁶⁹⁾ 등의 그들에 대한 감독⁷⁰⁾과 황제의 관심⁷¹⁾도 기사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유학생회의 활동은 자체 조직원들의 복지와 친목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유학을 통한 경험의 사회적 환원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유학생의 귀국 후 동향도 주로 관리나 교사 등으로 취직되는 문제로 기사화 됨으로써,⁷²⁾ 유학은

어려움으로는 학비 문제가 거론되었다. : 『독립신문』 1899년 9월 28일 「잡보」
 ○ '외관보고'(학비독촉 문제) ; 『만세보』 1906년 8월 22일 〈백립전보〉 「留學生擲代困難」 ; 1906년 8월 26일 〈잡보〉 「留學費減省說」 ; 1906년 10월 20일 〈잡보〉 「유학생구칙편제」 ; 1906년 10월 21일 〈잡보〉 「留學費減省」 ; 1906년 10월 23일 〈잡보〉 「유학비감성후문」 ; 1906년 10월 27일 〈잡보〉 「사비학생귀국여비」 ; 1906년 11월 7일 〈잡보〉 「보청학생식비」 ; 『대한민보』 1909년 9월 11일 「學界紀聞」 〈學資二十五圓〉.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초기에 일본에 유학생으로 파견된 이들의 식비 문제로 이들을 쇠환(刷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식비 문제를 처리하고 유학생을 쇠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광린:1986@, pp.60~61).

- 63) 『만세보』 1906년 8월 1일 〈잡보〉 「유학생조직구락부」.
 64) 『만세보』 1907년 1월 8일 〈잡보〉 「留學生拜賀式」.
 65) 『만세보』 1906년 12월 11일 〈잡보〉 「留學生會 雜誌刊行」.
 66) 『만세보』 1906년 10월 21일 〈잡보〉 「外國留學規則」 ; 1907년 2월 19일 〈잡보〉 「留學規程編制」 ; 1907년 3월 10일 〈官報抄錄〉 「學部令 第 3號 (續)」.
 67) '全電에 曰 學部에서 留學生의 試驗을 行하얏는디 最優等 九名, 優等 五名 中等 十八名이라더라.' (『만세보』 1906년 10월 30일 〈외보〉 「留學生賊驗」)
 68) 『만세보』 1906년 11월 9일 〈잡보〉 「受業大學校」.
 69) 『만세보』 1906년 11월 7일 〈잡보〉 「學生委托文部」.
 70) 『만세보』 1906년 11월 10일 〈잡보〉 「留學生相賀」 ; 『만세보』 1907년 1월 8일 〈잡보〉 「留學監督還國」.
 71) 『대한민보』 1909년 8월 25일 「잡보」 〈留學金交涉〉에는 황제폐하가 일본 유학생회에 금화 일만원을 하사한 기사가 실려 있다.
 72) 『만세보』 1906년 8월 25일 〈잡보〉 「閱氏新學問」.
 초기 일본 관비 유학생들의 경우, 귀국 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이광린:1986@, p.63). 『대한민보』 1909년 10월 20일 「학계기문」 〈卒業生勸勵〉에서는 일본 유학 졸업생 중 미취업자 8명을 학부에 소집하여 권려한 기사를 실고 있다.

개화를 주축으로 형성된 새로운 권력 획득의 기제라는 사회적 함의를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서구 유학이 기사화 된 사례는 많지 않다.⁷³⁾

① 학부대신 리완용씨 아들 리승구씨는 미국 갈니포니아주 무관학교에 들었다고 편지가 왔더라. (『독립신문』 1897년 8월 19일 「잡보」)

② 한국 황족 의화군씨서 (...) 지금까지 본방(필자주:일본)과 미국에 류학하신지 사년이면 오러되 학업이 성취치 못하니 (『독립신문』 1899년 3월 7일 「잡보」 ○ 지성권학)

③ 정부에서 무론 귀천인하고 충준호 즈데 一百명을 류학심으로 뽑아 十年 위한하고 서양 문명 각국에 파송하야 각양 학문과 지예를 비화 정묘히 연구하야 졸업후 후에 본국에 도라와서 부국 강병호는 정책을 확장케 하라고 작당을 하야 그 규칙을 방장 만든드니 류학심 미명 월급은 五十원식으로 주게 하되 그 돈은 해관 총세무스의 조회를 못하 각기 가서 류학는 그 나라의 해관에다 붓치고 그 나라에서 대한 항구로 향하여 오는 상민들의 물건 싣흔 료선에서 세전을 환희하야 쓰게 하며 (『독립신문』 1898년 12월 7일 「잡보」 ○ 시종여일)

신문 매체에 기사화된 미국 유학 사례에는 황족과 관리가 포함되며(①, ②), 구체적인 유학생의 선발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충춘 자제’가 선발 기준이 되어야 하며(③), 10년에서 15년을 기한으로 매달 학비를 지

그런 과정에서 여자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기증하는 사례(『만세보』 1906년 10월 30일 <잡보> 「女學教科書寄附」)는 오히려 예외적이었다.

73)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1883년에 미국에 유학한 변수(邊燾, 1861~1891)와 유길준이다. 변수는 한미간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된 1883년 5월, 김옥균(金玉均)과 서광범(徐光範)의 추천으로 미국에 견미사절(遣美使節), 즉 보방사(報聘使)로 파견되어 미국에서 관청과 병원, 공장 등을 시찰하고 11개월간 세계를 유람하고 귀국한다(이광린, 「韓國 最初의 美國大學 卒業生 邊燾」,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pp.68~70). 유길준은 1881년에 일본의 慶應義塾을 거쳐 1883년 방미사절단인 민영익의 주선으로 미국에 국비 유학생으로 가게 된다(강재언:1981, p.201). 1884~1090년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은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호민, 「일제시대의 대미인식」, 류영익 외:1994, p.149).

급하고 학업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뿐이다. 그 외에 환울과 학비 문제⁷⁴⁾, 동거인 동반 귀국 문제⁷⁵⁾, 미국의 총 학교 학원수, 전문학원, 남녀교사, 남녀학원, 도학학원, 법률학원, 의학학원, 사범학원, 소요산업, 여교사, 남교사, 남녀 학원의 숫자가 명시된 것⁷⁶⁾으로 미국 교육의 구체적인 정보가 소개되기도 했다.

1909년 즈음에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의 숫자와 전공 과목 등이 제시될 정도로, 기사가 구체화되었으나,⁷⁷⁾ 일본 유학의 경우에 비해서는 알려진 사례가 많지 않다. 당시에 문명 개화한 서구의 학문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지만, 직접 유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통해 배우려는 움직임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미국'은 개화기 근대국가 형성의 '서구적 모델'의 전범이 되지만, 구미의 입헌 정치를 모방하고 서양 학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움직임을 보인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결성은 1906년 4월에서야 가능했던 것이다.⁷⁸⁾

④ 조선 박여선이란 사람이 즈기 안희와 흠희 년전에 미국 드러가서 버리
 향야 즈기 부비를 당후여 주면서 공부를 식히더니 (『독립신문』 1896년 10월
 24일 「잡보」)

74) 1898년 1월 1일일자 『협성회회보』 「외보」 〈각국교육비: 친목회회보〉에는 영국, 법국, 보국, 오디리, 아라사국, 일본 등의 교육비가 제시되고, 환율까지 제시되었는데 서구의 유학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된 드문 자료이다. 1909년 9월 21일자 『대한민보』 「一叢話」란에는 영국, 법국, 야국, 미국 등의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비표가 제시되어 있다. 1909년 11월 24일자 『대한민보』 「학계기문」 〈유학생곤상〉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에 유학한 한국 학생의 학비 곤란 문제가 기사화 되었다.

75) 『만세보』 1906년 9월 11일 〈잡보〉 「率來俄女」.

76) 『협성회회보』 1898년 1월 8일 〈외보〉 「미국 근년 학교의 흥왕한 것」.

77) 『대한민보』 1909년 11월 3일 「학계기문」 〈在美學生〉: 『대한민보』 1909년 11월 7일 「학계기문」 〈소년병학교상황〉: 『대한민보』 1909년 11월 23일 「학계기문」 〈特入大學校〉 등.

78) 최기영,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고찰」, 조항래 편저,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p.1; 강제언(1981), p.247.

⑤ 東村 사는 某婦人兄男某가 外國에 多年留학다가 現今 모학교 관인으로 잇는디 其妹에게 言호되 外國에는 남녀가 異同이 업다 호고 양복을 입히고 인력거를 타고 험물사와 요리점으로 주야 왕래하는디 該(그) 여자는 원래 영리호고 민첩호고 인물도 淹전호며 년기는 삼십이내인디 항상 遐鄉 名家에서 菽麥不辨호는 郎子와 동거호야 고생으로 울적호든 중에 개명한 동생의 권고로 일이차 단녀 보니 실상 여차히 상패한 사이 업다 호고 인호야 심지가 방탕호야 세상 재산이 다 오의 농락에 잇다 호더니 근일에 전을 水과 갖치 쓰는 패가자모를 상종호야 지화기천원을 가지고 기 남매와 구미 각국에 유람차로 발정호는지라. 기 부모가 일변으로는 여식을 인호야 면목이 창피함을 한탄호고 일변으로 외국에 유람하면 前程이 發達호다고 속히 왕환이나 잘호기를 응망호다더라. (『만세보』 1906년 7월 28일 <잡보> 「婦人遊覽」)

⑥ 평양 스는 蘭史라 하는 기생이 풍류장에 유희호는 추태를 조하 아니호고 다만 학문상에만 성의가 대단하더니 일조에 외국에 유학호心을 결단호고 미국 화성돈에 가서 십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호고 일전에 귀국호았는디 학식과 언론이 위여호 장부의 품치가 잇다호니 감탄호 事이더라. (만세보 1906년 8월 7일 <잡보> 「女子卒業」)

여성의 서구 유학 사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일본의 사례조차 기사화될 만큼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주목되었다.⁷⁹⁾ ④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조선 여성에 대한 기사인데, 서술의 초점은 여성 당사자가 아니라 그녀를 ‘공부시킨’ 남편으로 제시되었다. ⑤는 외국 유람의 경험이 있는 남동생의 권고로 구미 각국에 유람한 딸에 대해 부모가 한편으로는 ‘낭비적 행동’이자 창피한 일로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로 앞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⁸⁰⁾ ⑥은 기생이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

79) ‘일본서 처음으로 절은 부인 하나미 미국 대학교로 들러 간다더라.’(『독립협회』 1898년 2월 12일 「외국통신」). 여기서도 여성 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1899년 8월 7일자 『독립신문』의 외보 ○ ‘각국유학’에서는 일본의 경응의숙에서 대학부 출신자 중에서 5명을 뽑아 독일, 미국, 영국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처럼 서구 유학은 타국의 사례일지라도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80) ‘나는 日本이나 美國을 가서 女子高等學校에 留學이나 하는 것이 志願이오므

하고 귀국하여 학식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사이다.

여성의 서구 유학은 지극히 드문 사례로 나타나지만 신교육의 수혜를 받은 서구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는 신문에 기사화 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기사나 논설에서 활동적인 서구 여성은 조선 여성이 배워야 할 모범적 사례로서 제시되었지만, '기괴하고 희한하다'는 관망적 관점도 나타난다.⁸¹⁾ 당시 여성은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 환경, 사회적 시선 등에서 자유롭게 못했으며, 남편이나 남동생 등 남성적 힘에 편승하지 않고 여성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유학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3. 이인직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서구 유학

1900년대에 창작된 소설 중에서 여성 인물의 서구 유학을 다룬 작품⁸²⁾은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회에 걸쳐 『만세보』에 연재된 이인직의 『혈의 누』와 그 작품의 속편으로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11회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된 「혈의 누」 하편, 1908년 창작된 『은세계』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소설의 공간에서

는 男便이 挽留하여서 못가오.(八婦人)'라는 『만세보』의 촌평(1906년 11월 17일 「小春月令」)은 당시 여성들이 일본과 미국 유학을 희망했지만 남편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81) '세계 각국에 미국 녀즈 갓치 기괴하고 희한한 것은 업스니 그 혼인하기 전에는 행동거지를 주유와 임의로 호야 혹 소년 남즈와 말도 갓치 돌니며 마차도 호가지 터며 혹 손을 쓰우고 흠세 운동도 호며 또 주괴의 집안 방에 공번되히 절믄 스나회를 다리고 드러가 세상물정과 이익기를 남남첩첩히 호며' (『제국신문』 1899년 5월 18일 「론설:미국부인」)

82)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의 작품에 나타난 서양 인식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운석·정명기, 「개항기 소설과 야담에 나타난 서구 인식」, 『열상고전연구』 1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pp.258~259을 참조.

구성된 여성 인물의 서구 체험과 서구 유학의 의미를 여성의 자기 의식과 타자와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⁸³⁾

(1) 계몽성의 이식, 여성적 체험의 공동화(空洞化) : 『혈의 누』

『혈의 누』에서 구국을 위한 '서구 유학'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임무로 언급되는데, 그 발언의 주체는 모두 김관일, 구완서 등의 남성 인물들이며, 이들의 결단은 주변의 동의를 구할 여지가 없이 선언만으로 충분한 의미부여가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아내와 딸을 잃고도 그들을 찾으려는 대신 국가를 위해 유학을 결심하는 김관일의 행동은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비난과는 무관하게, 애국적 소행으로 처리된다. 구완서에게도 미국은 자국의 자강을 위해 배워야 하는 모델의 나라로서, 미국 유학은 고민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 결정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미국 유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행 경로(p.42)를 제외하고는 유학 비용이나 학교·학과목의 선택, 현지에서의 인간 관계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는다.⁸⁴⁾ 미국 유학을 실천하는 김관일

83) 텍스트는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신소설선집』 1~2권(서울대출판부, 2003)으로 선정한다. 논의상 필요에 따라 『혈의 누』와 내용적으로 연계되며 하편격으로 인정받는 『모란봉』(1913년 2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됨)을 포함시킨다. 이하 각 작품의 인용은 위 전집의 해당 쪽수를 지시한다.

84) 에컨대, 옥련 부녀와 구완서의 만남에 대해서도 '미국 화성돈의 어떠한 호텔에서는 옥련의 부녀와 구씨가 솔밭같이 늘어앉아서 그렇듯 희희낙락한데'(p.55)와 같이 압축적으로 표현되며, 삶의 터전으로서의 구체적인 미국 내 공간이나 생활 모습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0년대 신문매체에서는 미국 관련 기사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문에는 학교나 철도, 기계, 음식(요리법) 등 서구의 일상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광고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당시에 일본 유학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의 누』의 일본 유학 부분 역시 일상적 차원에서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의 '유학' 문제는 단지 '상상적'이고 '이념적'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부요한 존재로 등장하며, 구완서는 유학 비용의 문제에 대해 개의치 않고, 처음 만난 옥련의 학비까지 감당하겠다고 자처하는 모습을 보인다(p.42). 이러한 구완서의 태도는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조명되지 않으며, 구국을 위해 동지애를 발휘하는 인간적인 태도로서 조명된다.

이처럼 ‘서구 유학’은 작중 인물의 현재성을 지배하는 일상적 체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관념적 차원’에서 동원된다. 이들의 화성돈 생활도 각자의 ‘호텔 방’ 안으로 제한되며, 현지인과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도 제시되지 않는다. 특히 주인공 옥련에게 미국 유학은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주어지며, 유학의 목적이나 계몽 의식도 자기 삶의 내적 계기를 통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구완서’라는 타자에 의해 매개된 관념이자 이식된 이상으로 제시된다. 학업을 지속하는 계기도 자기 계발과는 무관하며, 구완서에게 부여받은 부인교육의 사명조차 구완서에 대한 은혜 갚기의 차원을 압도하지 못한다.⁸⁵⁾ 그런데 옥련은 처음부터 구완서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나누지 못한 것처럼⁸⁶⁾, 그를 통해 주입된 계몽의 의지도 자기 안에서 내면화하는 데 실패한다.

오히려 옥련의 유학 시절을 지배한 것은 문명 개화를 위한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내가 죽기가 싫어서 죽지 아니한 것도 아니요, 공부하고자 하여 이곳에 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옥련은 ‘가

85)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월의 누』, p.55)는 것 또한 옥련 자신의 자각에 의한 결심이라기보다는 ‘구완서의 소청’에 의해 이식된 관념이다. : ‘구씨의 소청이 있으니, 그 소청인즉 옥련이가 구씨와 같이 몇 해든지 공부를 더 힘써 하여 학문이 유여한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고향 혼하고, 옥련이는 조선 부인 교육할 말아 하기를 청하는 유지한 말이라.’(『월의 누』, pp.54~55)

86) 옥련과 구완서의 의사소통의 격절 문제는 영어, 일어, 조선어 등의 언어 선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존대법, 내용적인 불통의 문제까지도 연계되며, 미국 유학 시절까지도 지속된다.

족의 이산'을 상기하거나, '모성의 결여'를 인식할 때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옥련이 이를 억제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구완서 대한 보은의 차원이며,⁸⁷⁾ 문명 개화 의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옥련의 미국 유학은 본인에게나 타자에게나 일종의 '가위 놀림'으로 경험된다.⁸⁸⁾ 이러한 옥련의 행위는 문명 개화나 부국 자강의 논리가 그 자신의 삶과 밀착되지 않은 '이식된 이념'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증거한다. 옥련에게서 미국 유학의 경험은 자살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는 근거로 작용하며, 연장된 삶은 타자에게서 이식된 삶의 목표, '계몽'이라는 관념에 지배된 결과 주체의 선택이나 판단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주체의 측면에서 옥련의 미국 생활은 일본 생활만큼이나 가혹하며, 타인에 의해 고향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공허한 상실의 시간으로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옥련은 미국에서 아버지를 만나자 다시 '어린 아이'의 상태로 되돌아⁸⁹⁾ 일시적으로 평온을 되찾는 것이다.

이처럼 옥련의 미국 유학은 자신의 내적 욕구나 의지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구완서라는 타자에 의해 권유된 것이고, 생존을 위해 택해야만 했던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옥련은 미국 유학의 체험을 통한 자기 발전이나 내적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귀국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 새로운 삶을 예비시키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의 실천적 주체로 재탄생 되지 못한다. 이러한 옥련의 삶의 모습은 일차적으로는 소설 공간에서 배치된 역할에 한정되지만, 자각과 선택에 의한 서구 유학의 길이 폐쇄적이었

87) "(...) 내가 죽으면 구씨는 나를 대단히 크게 여길 터이라. 구씨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죽으면 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 어찌하면 좋을꼬." (『혈의 누』, pp.47~48)

88) '이웃 방에 있는 여학생이 일어나서 뒷간으로 내려가는 길에 옥련의 방 앞으로 지나다가 옥련의 가위놀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하략)' (『혈의 누』, p.49)

89) '옥련이가 일곱 살에 응석하던 마음이 새로이 나서 부친의 무릎 위에 얼굴을 폭 숙이고 소리 없이 우는데, 김관일의 눈물은 옥련의 머리 뒤에 떨어지고, 옥련의 눈물은 그 부친의 무릎이 젖는다.' (『혈의 누』, p.51) ; '옥련이가 그리 어려졌던지 부친이 눈물 씻어주는 데 고개를 디밀고 있더라.' (『혈의 누』, p.51)

던 당대 여성의 현실적 모습이 투사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이념과 실천이 괴리되고, 주체와 타자가 어긋난 채로 소통하는 『혈의 누』가 미완의 서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면서, 그 하편격인 『모란봉』조차 미완의 서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소이를 남겨준다.

(2) 모성의 부재와 대리 부성의 ‘서구’ : 『은세계』

『은세계』에서도 여성 인물의 서구 유학은 실패한 아버지의 개화 의지를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김정수의 권고에 의해 이식된 형태로 주어진다. 부패 관리에게 항거하다 죽음에 이른 최병도의 문명 개화 의지는 친구를 통해 자식들에게 이식된다. 옥순과 옥남의 미국 유학은 ‘미친 어머니’를 고국에 홀로 남겨두면서까지 단행해야 하는 ‘이념적 요청’이자 구국의 방법으로 설득된다. ‘서구 유학’은 조선의 모순된 현실에 의해 ‘타살당한’ 아버지의 뜻을 잇는 의미 있는 행위로서, ‘서구’란 곧 그러한 부성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념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 결과 이들의 유학의 체험도 호텔에서 다섯 해 동안 지냈다는 지적(p.71) 외에는 어떠한 세부 사항도 제시되지 않은 채 하나의 기정 사실로서 처리된다.

이들은 유학 생활을 통해 각기 다른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옥남이 이를 통해 국가주의적 발상을 내면화 하는데 비해 옥순은 끝내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옥순은 자신이 여자라 최가의 집에 쓸데없는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개화하지 못한’ 의식 수준을 보여주며,⁹⁰⁾ 국가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에서 옥남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⁹¹⁾ 이러

90) “(...) 나는 여자이라, 살아 있더라도 우리 최가의 집에 쓸데없는 인생이니, 죽으나 사나 소중한 것 없는 사람이나, 너는 아무쪼록 살았다가 조상의 피나 목지 말게 하여라.” (『은세계』, p.72)

91) “여보 누님, 우리나라 이천만 생명의 성쇠가 달린 나라가 결판나게 된 생각이 아니하고, 최가의 집 하나 망하는 것만 그리 대단히 아오? (하략)” (『은세계』,

한 작중 인물의 배치는 ‘남성=국가’/‘여성=가족’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철의 누』의 인물 관계와 일치한다.

또한 옥남은 공부하면 해결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옥순을 시집가서 편히 살려는 옥구와 연결시켜 폄하한다.⁹²⁾ 서술자도 유독 옥남이만을 신학문의 수혜자로 평가하고 있다.⁹³⁾ 실제로 옥남은 ‘부모의 은혜 받은 이 몸이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국민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이며,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넓혀서 아무 때든지 개혁당이 되어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성하는 것’(p.78)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옥남은 유학을 통해 ‘김정수’와 ‘시백기 아니스’의 생각을 이어받아 ‘국가주의’에 기초한 ‘개혁외식’을 내면화하는 계기로 삼는 반면, 옥순에게서 서양의 체험은 다만 고국에서 멀어지고 그리움만 더하게 한 것일 뿐, 자기 변화와는 무관하다.

이들이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는 데에 부여하는 의미도 상이하다. 옥순에게서 귀국은 그리운 어머니와의 해후라는 의미를 갖지만, 옥남에게는 ‘놀부적인 세계’(pp.79~80)로서의 조선을 개혁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시 신문 매체에서도 외국 유학은 개인의 학문적 호기심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애국’의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유학생의 귀국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외국 유학생들은 귀국하여 진심으로 국가를 도울 생각을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각처에 나간 유학생들을 외국인 보듯이 하지 말고 골고루 등용하여 한다는 것과 유학생들의 자기 계발과 자기의 사회화에 대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

p.72)

92) ‘어머니를 위할 생각을 그만하고 나라 위할 도리를 하시오. 누님이 만일 그런 생각이 작고 하루바삐 고국에 돌아가서 어머니나 뵈고 누님이 시집이나 가서 편히 잘살려는 생각이 간절하거든 오늘일이지라도 떠나가시오.’ (『은세계』, p.78)

93) ‘옥남이 같이 신학문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세계』, p.79)

가 강조된 당시 신문의 논설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대변하고 있다.⁹⁴⁾

이인적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자기 의식’을 국가와 자신의 동일시 관념 속에서 구축했지만, 그 의식의 주체는 남성 인물로 제한된다. 『은세계』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 한 것은 ‘옥순’이었지만, 그 정신을 되돌린 당사자가 이성적인 옥남이며, 귀국 후에도 ‘설득’과 ‘연설’을 구사하는 개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 또한 옥남으로 제한된다. 옥순에게서 유학이란 처음부터 타인의 의지와 오해 속에서 귀국에 대한 욕구를 억압당한 삶의 유예였으며, 이는 귀국 후에 주체적으로 삶의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옥순 남매의 이야기는 이들이 귀국 후에도 모순으로 가득 찬 조선의 현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다른 파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서 마무리된다. 『은세계』가 미완의 서사로 마무리된 것은 『혈의 누』와 마찬가지로 이념적 형태로 문명 개화를 주창했던 주인공들이 현실 안에서 실천의 정당한 출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데서 기인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와 고국을 그리워하는 여성 인물이 작중 세계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한 채, 귀국 후에 조선의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가족과 혼인 제도 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이 시기의 여성 인식이 관념의 영역에서조차 소외된 지위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4) ‘그런고로 우리 나라에서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잇는 심도들을 불너 녀여다가 차차 일을 식히보면 그 사름들이 외국 일도 더 알고 인정들도 조세히 짐작하려 니와 첫지 그 사름들이 그 써는 바라던 쫓을 었으미 나라홀 사랑호는 마음들도 더 날 썩더러 조그들의 일신상 관계가 모도 본국 정부에 달녇스죽 조연 그 정부를 튼튼히 만드려 조그 관계 되는것시 오리 지뎡호여 가게 힘을 쓸 터이니 지금 시세에 미우 긴급호 것시 외국에 가 잇는 심도들을 불너 쓰는 것시 첫지가 될지라.’ (『민일신문』 1898년 5월 18일 「론설」).

4. 결론 : 개화의 서곡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는 일, 청, 미, 영, 러 등 세계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책략과 권력 정치의 무대가 되었고, 조정은 서로 다른 세계와의 결탁 속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세를 기세로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체결(1905. 7)한 이후 필리핀에 대한 통치의 목인을 교환조건으로 일본의 한국지배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밀약은 1927년에야 비로소 공개되었으므로 조선 조정은 그 내용도 모르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수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1920년대의 대미인식조차 미국이 개명한 나라이자 부강한 대국, 자유로운 나라, 한국의 주권을 수호해 줄 수 있는 나라라는 미국관을 기초로 전개되었음을 고려한다면,⁹⁵⁾ 1900년대에 독자 대중이 신문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대미인식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1900년대의 신문 매체에서 서구는 문명 개화를 추구하는 조선이 도달해야 할 '전범'으로 이해되고 설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동시대의 신문매체에 연재된 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설이나 신문매체에서는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된 문명 개화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자체를 '완성된 것'으로 상정하고, 조선이 본받아야 할 규범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서구 열강 속에서 조선은 그들이 선취한 문명개화를 '효측'해야 한다는 전제된 합의에 도달해 있었으며, 서구는 조선에 '호혜적'이라는 발상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구적인 문명'은 반성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완성품'으로 이해되었으며, 조선은 개화를 이루기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인직의 소설에서도 문명 개화는 자각한 남성 주인공들의 '선

95) 류영익(1994), pp.149~150.

언적' 발화로서 주어지고, 반성의 여지가 없이 확고한 실천적 덕목으로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들에게 계몽된 개화의 논리를 내면의 자각이나 합의와는 무관하게 요청받음으로써, 육체적으로 확인해 가는 주체적 삶의 내용과는 무관한 하나의 관념적 소명으로서 수용했음을 보여주었다. 『혈의 누』의 옥련이나 『은세계』의 옥순과 같은 여성 인물들은 서구 유학을 선택하는 동기의 측면이나 실제의 유학 기간 동안, 이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방편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적인 삶의 계기를 발견하는 자각의 방편으로도 삼지 못한 채, 관념적이고 응변적이며, 당위적인 계몽의 논리에 포섭되어 갔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이 내밀하게 감지하는 고국과 어머니의 세계는 의식적으로는 망각과 침묵의 세계로 억압되며,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로 침전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소설에서는 개화를 위해 서구 유학을 마친 인물들의 귀국 후의 활동이 구체화되지 않으며, 소설 자체도 미완의 서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미완은 관념으로서의 개화 논리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지만, 개화의 주체를 수용할 수 없는 '조선적 상태'를 문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갈등과 문제의 소지를 '조선 내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서사의 정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서구 유학을 체험한 개화의 주체들은 정작 개화를 현실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채, 개화의 '서곡'을 알리는 데서 서사적 직무를 종결하며, 이러한 서사 형식은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됨으로서, '개화'의 문제는 실천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조선적인 것'의 한계를 확인하는 자기 부정의 시선으로서 안착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대한민보』 1909년 6월 2일~1910년 3월 10일.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1899년 12월 4일.

『만세보』 1906년 6월 17일~1907년 6월 29일.

『제국신문』 1898년 8월 10일~1902년 12월 29일.

『협성회회보/매일신문』 1898년 1월 1일~1899년 4월 3일.

권영민·김종옥·배경열 편, 『신소설선집』 1~2권, 서울대출판부, 2003.

2. 논저

姜在彦, 『韓國의 開化思想』, 정창열 옮김, 비봉출판사, 1981.

송병기, 「쇄국기의 대미인식」, 류영익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이광린, 「개화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이윤석·정명기, 「개항기 소설과 야담에 나타난 서구 인식」, 『열상고전연구』 1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Abstract

Woman as an Educational Subject and Their Studying in the West

— The Relation between the West, studying abroad and woman in the Korean Newspapers and Novels of 1900's

Choi, Key-Sook

It is a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at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Korean newspapers of 1900's. The educational system is raised an issue of practical method about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re were many articles that the Korean should study the western culture and educational system to civilize and to prosper. The woman was not regarded as an important educational subject until that times.

The woman become a topic in the newspapers as schoolgirls, the pupils' parents and members of women's associations. But there were no articles that were emphasized woman's concrete method to civilize and to reflect on their conduct to do. It was due to that they were brought over as a 'subordinative subject'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project.

In the Koeran newspapers at that times, it was supported that the west was the model of modern civilization, so many Korean students should go abroad to study their science and knowledge. But there were very unusual points of view that the woman should go abroad or go the west to study something.

In 1900's, Lee In-Jik(李人植) wrote novels like *Tears of Blood(HyelUiNoo)*, *Silver World(EunSeGye)*, *MoRanBong* which were discribed the living and studying in the west of korean woman. But their life narrated very superficially, and their working

in Korea after home-coming were described very vaguely. The narratives ended unfinished. Those narratives show that the writer intended to tell Korea has many problems to civilize, and they were very internal matters. It is the narrative politics that were written in the novels by Lee In-Jil in 1900's.

key words : woman, education, school, the west, studying abroad, civilization, enlightenment, Lee In-Jik(李人植), *Tears in Blood(HyelUiNoo)*, *Silver World(EunSeGye)*, *MoRanBong*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